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9월 22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 교통운영팀장 김민교 ☎440-3881 • 담당자 최 고은 ☎440-388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주민, 공항철도 환승할인 1인당 2만5천원 환급
- 7월 1일 사업개시 이후 첫 지원 ... 9월~11월 할인요금 12월 말 환급 -
- 수도권 유일의 통합환승요금제 운임차별 해소 -

지난 7월, 8월 두 달간 공항철도를 환승 이용한 영종 주민들은 1인당 평균 2만5천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1만 2,500원을 환급받은 셈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8월 두 달간 공항철도를 이용한 영종 지역 주민의 환승할인 요금으로 11,271명에게 총 2억8천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중교통비 지원금을 환급받는 대상은 지난 7월말까지 ‘영종 지역 주민 대중교통비 지원 포털’ (<http://incheonyj.tmoney.co.kr>)에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9월 초 영종지역 거주지 인증을 마친 11,271명이다. 이들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대중교통(공항철도 및 영종지역 버스) 환승할인 요금으로 총 2억8천만 원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만5천 원(2개월 이용 분)이었으며,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역까지 출퇴근한 직장인(한 달 20일 출근 기준)은 버스 환승을 포함해 약 19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30대 이하가 지원대상의 54.4%를 차지했다.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 사업’은 영종지역 주민이 공항철도 운서역, 영종역을 이용(경유)하고 교통카드로 지불한 요금과 수도권통합환승이 될 경우 부담할 요금 간의 차액을 환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영종지역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되지 않아 운임차별을 받아왔다.

인천시는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영종지역 주민 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국토교통부, 공항철도(주)와 함께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 홍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중구 2청사 및 영종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총 5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역 모든 세대와 역사에 안내지 배포, 지하철 홍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에도 집중했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요금 지원을 위한 전용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지난 7월 1일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비 지원 포털’을 오픈했다.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9월 20일 현재 2만4,820명의 회원이 포털 가입을 완료했다.

김을수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주민 여러분의 의견수렴과 기관 간 합의를 거쳐 영종지역 주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최초 지원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항철도에 완전한 수도권 통합 환승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공항철도 환승할인 요금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영종지역 주민들은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비 지원 포털’ (<http://incheonyj.tmoney.co.kr>)에 가입한 후, 공항철도가 포함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매 분기마다 지원 포털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치면 분기별(3, 6, 9, 12월의 말일 경)로 환급받을 수 있다.

9월~11월 환승할인 요금은 교통카드 데이터 정산을 거쳐 12월 말 경 지급될 예정이다.

<관련사진> 공항철도

